

경계에 서기,
세계문학이 되기 위한 서사와 번역의 전략*
- 〈엄마를 부탁해〉의 작가 신경숙과
번역가 김지영 사례를 중심으로

윤정화**

1. 서론
2. 신경숙: '익숙한 것을 쓰기'라는 전략
 - 2-1. 세계와 통하는 이야기- '부재'하는 '엄마'
 - 2-2. '너'의 엄마, 독자의 '엄마'를 지칭하는 서사적 형식
 - 2-3. 틈의 목소리, 틈의 존재 '엄마'
3. 김지영: '다시 쓰기'의 전략
 - 3-1. 'Mother'를 'Mom'으로
 - 3-2. '수용자'를 위한 '자국화' 번역 방식
 - 3-3. 2인칭 '너'와 'you'의 경계를 허문 과감한 생략
4. 결론

국문요약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역동적 장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문학은 나름의 차이를 지닌 다양한 문학이 세계로 확산되어 만들어 가고 있는 역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미권 출판 시장의 개입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문학의 장에 진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양학부 조교수

입하기 위해 한국문학이 취해야 할 서사적 전략과 번역의 전략을 정리해 보았다.

신경숙 소설은 서사 전략에 대한 창조적 사유가 있었기에 새로운 차이를 가지고 한국문학 바깥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신경숙 소설의 서사적 전략으로 인해 반복되어 익숙한 원형으로서의 ‘엄마’는 ‘아무도 모르는’ 낯선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죄책감을 가지고 찾아야 할 대상이 된다. 원형의 존재인 ‘엄마’는 소설가 신경숙의 서사전략을 통해 경계적 존재인 ‘엄마’가 된 것이다.

그리고 경계인 김지영이라는 번역가의 프리즘을 통과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경계인 번역가 김지영이 자신이 위치해 있는 경계에서 다시 쓴 새로운 창작품이 된다. 김지영은 미국의 수요에 응답하는 한국의 작품을 해석한 후 자신을 길러 준 문화적 시각으로 ‘다시 쓰는’ 재생산의 과정으로 번역을 창의적 활동으로 전환한다. 그리하여 이 경계의 긴장감으로 타 번역가와 다른 차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신경숙 작가와 김지영 번역가가 만들어낸 세계문학으로의 소통은 비서구와 서구가 함께 문학의 생산과 번역을 통한 수용 과정으로 구축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국내외 평가와 국내외 수용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 세계문학에서 한국문학이 더 많은 영역을 점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세계문학, 신경숙, 김지영, 원형, 다시 쓰기, 번역, 서사 전략)

1. 서론

한강의 10여 년 전 작품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상을 수상하여 큰 화

제를 모으고 있다. 이 수상 소식이 더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번역가의 창의적 번역에 관한 과감한 피력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작업은 번역의 충실성 보다는 수용자 중심 번역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¹⁾

본고는 서구 중심의 세계문학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이 취해야 할 서사적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서사적 전략에서 번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사이드의 말에 의거하여 비서구, 서구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 하지 말고 두 가지 사회와 문화에 다 속하는²⁾ 소설적 방법과 번역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자 했다.

우선, 세계문학은 괴테에 의하면, “특정 국가, 민족 또는 지역의 언어로 된 문학들을 당연히 전제한 것³⁾이고, 여러 민족 문학들은 상호 소통과 대화의 역동성을 어떻게 서사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세계문학의 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학은 서구와 비서구를 불문하고 세계문학의 개념을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의 전지구적 변화, 그리고 “시대와 장소의 국한을 넘어선 감동을 지향하는⁴⁾ 방법을 서사적인 측면에서 궁리해야 할 것이다. 다수 연구자들이 언급했듯이, “한국문학 스스로 세계독자들을 감동시키는 내적 근거를 보유해야 하⁵⁾는 것이다.

1) 『채식주의자 ‘데보라 스미스, 이전 한국인 번역과 이것이 달랐다』, 『뉴스1』2016.5.23. <http://news1.kr/articles/?2670212> (최종검색일 2016.11.5.)

2) Kim Seong-Kon, 『Korean Literatur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omparative Korean Studies』 8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01, 33-50쪽.

3) 백낙청, 『세계화와 문학: 세계문학, 국민/민족문학, 지역문학, 특집: 세계문학을 다시 묻는다』, 『영미문학연구회 2010년 봄 학술대회 기초발제』 내용, 2010, 19쪽.

4) 백낙청, 『세계화와 문학: 세계문학, 국민/민족문학, 지역문학, 특집: 세계문학을 다시 묻는다』, 『영미문학연구회 2010년 봄 학술대회 기초발제』 내용, 2010, 15쪽.

5)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황석영의 바리테기를 중심으로』

모레티의 표현을 빌면, 세계문학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서 접근되어야 한다.”⁶⁾ 이러한 세계문학에 관한 견해를 기반으로 본고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통해 세계문학으로의 틈입을 사유해 보고자 한다. 지구화시대의 세계문학이 경쟁, 소통과 결합 또는 이 모두가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양상의 각축전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적 현상 그 자체라고 보았을 때, 신경숙의 작품이 세계문학의 장에서 하나의 ‘문제적 사건’으로 처음에 가깝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적 작품이 어떠한 서사적 원리로 ‘사건’이 되었는가하는 의문을 풀기 위한 논의를 개진한다.

본고는 신경숙의 소설이 세계문학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에 “창조적 사유의 힘으로 맞서고 있다.”⁷⁾고 보고, 서구중심의 세계문학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신경숙의 성공적 진입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2011년 영어로 번역되어 한국 출판물 사상 처음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소설이다. 단지 5일만의 판매 기록으로 초반 21위를 기록하여 하루키의 첫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인 17위에 근접하는 결과를 기록했다.⁸⁾ 신경숙에 대한 영어권의 반응이 의미 있는 이유는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이 적어도 유럽에서는

로, 『한민족어문학』 제51집, 2007, 73쪽.

6) 윤지관, 『특집: 세계문학을 다시 묻는다: ‘경쟁하는 문학과 세계문학의 이념』,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29권, 영미문학연구회, 2010, 34-54쪽.

7) 윤지관, 『특집: 세계문학을 다시 묻는다: ‘경쟁하는 문학과 세계문학의 이념』,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29권, 영미문학연구회, 2010, 54쪽.

8) 최성실, 『세계 속의 한국문학: 내러티브 인지와 공감의 글쓰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9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382쪽. 크노프의 부사장 로빈 테서는 2011년 10월 한국을 방문해 이 소설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을 “크노프 전체에서도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世界文學比較研究』 37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307-309쪽.

어느 정도의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지만⁹⁾, 영미권에서의 한국문학의 수용방식은 “유럽 쪽처럼 일상적이거나 연구자 집단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신경숙 작품에 대한 반응은 서구권이 기존의 기획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에 대한 것을 확장한 작업이 아니라 책 자체의 판매부수와 그에 대한 독자의 호감도라는 새로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열었다¹⁰⁾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도착어권 출판계 중심의 수용과 다수의 서평”¹¹⁾이 이루어진 작품이고 이는 이 책이 서구의 독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²⁾

9) “이문열의 『금시조』,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문학과도 다른 또 하나의 동아시아 문학 특유의 정신세계가 유럽의 문인들과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오늘날 황석영의 『손님』과 이승우의 『생의 이면』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에 대한 ‘환대’는 지속되고 있다.” 정명교, 『세계문학과 번역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한국문학의 오늘』,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2013, 18쪽-19쪽.

10) “영어로 번역되는 다양한 언어권의 문학 작품들이 출판 시장에 넘쳐나고, 번역도서를 꺼려하는 영어권 출판시장의 특성상 독자들이 수많은 언어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춘 후에 책을 선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서평이 독자들의 번역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世界文學比較研究』 37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304쪽.

11)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世界文學比較研究』 37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309쪽.

12) 해외출판계는 표절 사건 이후에도 이 작품의 성공 이후 한국문학의 적극적 소개가 시작되었고 이후 다양한 한국문학작품이 소개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글로벌 출판시장에서의 한국문학’ 포럼에 참석한 출판 에이전시 바바라 지트워는 “스미스의 번역이 좋았다는 점 외에도 그동안 해외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지면이 두터워진 것이 ‘채식주의자’의 해외 진출과 수상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2011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신경숙의 성공 이후 적극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학작품이 소개될 수 있었다.”며 미국출판 분위기가 한국문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채식주의자』 거절했던 외국출판사들 지금 울고 있어요, 『연합뉴스』, 2016.6.17.

2. 신경숙: '익숙한 것을 쓰기'라는 전략

2-1. 세계와 통하는 이야기 - '부재'하는 '엄마'

프레드릭 제임슨과 프랑코 모레티의 '문화적 역학'에 의거해 볼 때, 주목해야 할 서사적 요소들은 '외래적 플롯, 지역적 인물들, 지역적 서사의 목소리'이다.¹³⁾ 신경숙 작품은 소설이라는 외래의 플롯을 빌어 한국의 이미지를 담은 인물을 통해 전달한다. 그리고 문체의 효과, 단어의 선택, 그리고 리듬들이 지역적 서사의 목소리를 완성한다. 그러나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세계와 통하는 공감의 서사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엄마'에 대해 한국과 영미권 모두 여성성의 신화화를 지속한다고 비판하는 평가가 있었다.¹⁴⁾ 신경숙의 '엄마'가 함의하고 있는 대지모신의 이미지에 감동을 나타내는 평가도 있다.¹⁵⁾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148600005.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6.11.5.)

- 13) 폴 월먼, 『한국영화를 통해 우회하기』, 김소영 편저, 『트랜스: 아시아 영상문화』, 현실문화연구, 2006, 569-571쪽.
- 14) 한국에서의 백낙청, 류보선, 유희석, 이선우, 고봉준, 조영일 등의 상반된 평가는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世界文學比較研究』 37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307-308쪽에 정리된 내용을 참조했다. 현지에서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는 진승희, 『한국문학을 '부탁해?』, 『플랫폼』 7.8호, 인천문화재단, 2012, 65-66쪽; 조영일, 『"엄마를 부탁해"를 둘러싸고』, 『문화비평』 여름호, 황해문화, 2011, 302쪽; 박철우,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 제13권 제2호(통권 제31호), 2014, 5쪽에서 재인용하였다.
- 15) 정명교는 2013년에도 "황석영의 『심청』(문학동네, 2003),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창비, 2008, Kyung-Sook Shin, *Please Look After Mom*, translated by Chi-Young Kim, NewYork Vintage Contemporaries Edition, 2011) 이후, 김주영의 『잘 가요 엄마』(문학

마라는 보편성을 다루었기 때문에 신경숙의 ‘엄마’가 번역불가능성의 경계를 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성실은 『엄마를 부탁해』가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많은 대중적인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연민의 대상인 ‘엄마’를 소재로 한 것 때문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서구권에서 이 소설이 성공한 것은 이 소설이 내재하고 있는 문학적 상상을 공유하는 수용자의 마음의 연대가 몸의 기억으로 체화되면서 이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이러한 의견은 이 소설의 감동이 단지 ‘소재적 차원의 제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신경숙은 “삭막하고 메마른 도시 생활에 맞서는 생태적인 기획을 소설의 서사전략으로 삼은 작가”¹⁷⁾이다. 또한 신경숙 작가의 주된 관심사는 ‘가족’이었다.¹⁸⁾ 그러므로 신경숙 작가의 ‘엄마’라는 화소는 그녀의 작품 세계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엄마라는 소재적 차원의 원형성을 서사적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 형식적인 장치가 그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하였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의 감동을 연대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동네, 2012)가 다시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어머니’를 끌어 올렸다.” 고 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수렴되는 여성성에 대한 깊은 무의식을 지적하고 있다. 정명교, 『세계문학과 번역의 맥락 속에서 살펴 본 한국문학의 오늘』,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2013, 25쪽.

16) 최성실, 『세계 속의 한국문학: 내러티브 인지와 공감의 글쓰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9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387-389쪽.

17) 한기욱, 『지구시대 한국문학의 안과 밖, 우리 시대의 사랑 성 환경 이야기』, 『창작과 비평』 122, 2003, 68-72쪽 정리.

18) 최성실, 『세계 속의 한국문학: 내러티브 인지와 공감의 글쓰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9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386쪽.

렇게 보는 이유는 신경숙 외에도 민족적인 이야기 화소를 세계적 연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는 작가들의 성공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는 “전 지구적 자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분열, 테러와 인종 갈등 등 세계적 문제를 경험한 이주여성”¹⁹⁾의 이야기를 민족 신화의 원형성을 간직하고 있는 ‘바리’를 소환하여 다시 쓰고 있다. 황석영이 무궁의 원형적 인물인 ‘바리데기’를 전지구적 문제의 이주자로 선택한 이유는 “민족 신화의 세계적 확장과 함께 민족 신화의 인류 보편적 세계성을 확보하자”²⁰⁾는 의미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형 서사의 힘은 오랫동안 “자연과 인간 사이에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²¹⁾으로 서사를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 연대감을 형성²²⁾한다.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서사는 민족의 경계와 타민족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이야기를 할 때, 서사텍스트는 스토리와 담론으로 나뉘며, 스토리는 사건과 존재들로 이루어진다. 스토리의 존재들은 인물과 배경이다.²³⁾

19) 박승희, 「민족과 세계의 연대방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7집, 2010, 510쪽.

20) 박승희, 「민족과 세계의 연대방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7집, 2010, 511쪽.

21) 박승희, 「민족과 세계의 연대방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7집, 2010, 516쪽. 이 외에도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원형적 서사를 다루는 이야기들은 상호텍스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유사한 이야기를 재생산한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으나, 정찬 작가의 예를 빌어 일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장미영,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소고: 정찬과 토마스 만의 베니스 소설의 상호텍스트성」, 『외국문학연구』 제4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415-439쪽.

22) “운동주는 한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한국문학’이지만 동시에 ‘중국문학’이기도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학’이기도 하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본문학’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서경식, 「기획 내가 읽은 한국문학: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둘러싼 단상-새로운 보편성을 찾아서」, 『디아스포라 기행』 서문, 돌베개, 2006, 282-275쪽.

신경숙의 스토리 속 존재들은 한국의 엄마와 한국의 시공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우발적 사건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지만 이 모든 스토리의 요소들은 그 원형적 연대감으로 인해 경계 밖과 안을 구분지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요소들은 그저 서사적 요소로서 존재한다.

이야기의 심층구조를 반영하는 공통된 서사구조를 플롯의 거시구조라 할 때, 이러한 플롯의 거시구조에는 여러 문화권에서 오랜 세월이 걸쳐 존재하는 반복적인 표현의 패턴이 존재한다. 이렇게 문학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표현의 패턴을 일종의 ‘원형(原型)’이라 할 수 있는데²⁴⁾ 서사구조 면에서 공감의 연원은 이러한 원형의 반복에서 비롯된다. 원형의 힘으로 스토리는 번역어라는 경계를 넘어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즉 원형의 힘은 비서구나 서구를 초월하여 존재한다.²⁵⁾ 경계 그 자체는 존재하나 소통의 장애물로 존재하지 않고 다름을 구별하는 선으로서의 기능만 한다.

23) 시모어 채트먼,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5, 49-114쪽 참조.

24) 이때 ‘원형’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신화의 전형적인 형태가 후대의 문학양식이나 관례가 되었다고 보는 신화비평(원형비평)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드롭 프라이에 의하면 신화는 인간과 비인간을 동일시하는 소박한 상상력의 소산으로 후세에 문명으로 계승되어 이야기의 구조적 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란 특정 기간에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는 동시에 원형적 인물, 이미지, 상징, 장면 구성의 영원하고 반복적인 표현으로서 역사적 시간의 차원 밖에 하나의 연속체로서 존재한다. 노드롭 프라이는 원형(archetype)이라는 용어를 창조의 패턴과 모델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표현의 패턴으로서의 원형은 융 심리학에서의 원형(archetype: 집단무의식)과는 구별되지만 이러한 이야기의 패턴이라는 것이 결국 인류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집단적 무의식의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김병욱 외 편역, 『문학과 신화』, 대방출판사, 1983, 32쪽.

2-2. '너'의 엄마, 독자의 '엄마'를 지칭하는 서사적 형식

원형적 화소인 '엄마'를 플롯에서는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서사적 형식의 전략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서사적으로는 실종된 존재이지만 역설적으로 플롯 모든 곳에서 존재한다. 인물들에게 엄마는 부재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엄마' 스토리를 플롯에서 재배열하는 전략이 이 소설의 미학적 원리를 완성한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글 쓰는 딸, 세 아이를 기르는 작은 딸, 그리고 그들 오빠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실종된 엄마 자신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엄마'의 실종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입장을 통해 실종된 '엄마'는 새롭게 구성된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엄마'는 없어진 다음, 그 부재로 인해 엄마를 둘러싼 관계들 속에서 실재하기 시작한다.

엄마의 실종은 그가 까마득히 잊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 속의 일들을 죄다 불러 들었다. 그 문짝까지도.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120쪽²⁶⁾)

〈1장: 아무도 모른다〉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진술로 시작한다. 1장은 위로 오빠를 둔 글 쓰는 사람인 큰딸을 '너'로 지칭하고 있다. 〈3장: 나, 왔네〉는 남편의 서술로 진행된다. 이 장에서는 남편을 '당신'으로 부르는데, '당신'은 아내가 십여 년 전부터 소망원에 와서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빨래를 하고 소망원 마당에 농사를 지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내가 없어진 후에 알게 된다.

아내를 지하철 서울역에서 잃어버리기 전까지 당신에게 아내는 형철 엄마였

26) 이후 작품 인용 시 쪽수만 기재함.

다. ……오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잊고 지낸 아내가 당신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떠올랐다. 사라지고 난 뒤에야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육감적으로 다가왔다. (신경숙, 149쪽)

〈4장: 다른 여인〉에서 서술화자는 ‘엄마’이다. 엄마는 ‘너’라고 부르는 둘째딸의 집을 찾고 ‘행복할 때보다 불안할 때’(236쪽) 찾게 되던 ‘이은규’라는 정인을 찾아가고, 지금은 아무도 없는 자신이 살던 옛집을 찾아가다. 그리고 〈에필로그: 장미묵주〉에서는 이탈리아에 간 큰딸 지현이를 ‘너’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256쪽)가 된다.

이 소설에서 2장만 ‘그’라는 3인칭으로 서술된다. 엄마의 아들인 ‘그’가 느끼고 있는 상실감은 매우 큰 것이나, 이 2장에서야 비로소 독자는 관찰자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왜 2장일까. 1장은 충격적 실종 사건을 제시하는 데에 그친다.

이 소설의 서사적 공간은 2장에서야 마련된다. 독자가 독서행위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실종 사건을 제대로 목도할 수 있는 숨고르기란 2장에서부터 가능하게 된다. 소설의 공간 밖에서 독자는 아들인 ‘그’와 함께 ‘그’ 자신과 ‘그의 여동생’의 회한을 목격하게 된다. 3인칭이 생성하는 거리감은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의 충격에서 빠져 나와, ‘엄마’를 잃은 슬픔에 빠진 인물들이 자기 연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반성을 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한다. 반성은 이름 부르는 자에 대해 응답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냉철하게 관찰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3,4장과 에필로그에서는 ‘2인칭’인 시점을 사용하면서 2장에서만 3인칭을 선택한 이유는 **반성**이 이 서술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 모든 일에 답이 생기네, 오빠, 엄마가 원하는 거 그거 다 해줄 수 있었어. 별일도 아니었어. 내가 왜 그런 일로 엄마 속을 꿰었나 몰라.
(130쪽)

근데 내 어떤 계획에도 엄마와 무엇을 함께하겠다는 건 없더라. 쓸 때는 몰랐어.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보니 그렇더라구.
(132쪽)

가족을 위해 치르는 엄마의 희생과 그리고 가족에게 닥친 엄마의 실종을 다룬 많은 소설들이 있다. ‘원형’의 엄마로써 세계의 독자에게 다가갈 상투적인 눈물의 공감을 유도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이러한 서사적 형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신경숙 작가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던 원형의 화소를 다루면서도, 타 작가와는 구별되는 지점 즉, 몰입이 아닌 반성의 행위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어소설이라는 경계 밖 번역 작품으로서의 한계를 넘게 된다.

다시 ‘2인칭’이라는 서사적 장치에 집중해 보겠다. ‘너’로 호칭함으로써 ‘엄마’는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너’의 ‘그녀’일 수도 있으며, 어느 ‘여자’가 무심히 바라본 ‘여인’일 수도 있게 된다. 우선, 〈엄마를 부탁해〉는 독자에게 2인칭으로 직접 말을 건넨다. ‘너’라고 지칭되는 소설 속 인물들은 사실, 스토리 속에서 존재하는 요소이지만, 독자들을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소설 속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작가가 구성한 세계와 그 서사의 밖에서 서사를 따라가는 독자들의 정체성과 그 역할의 입장이 ‘너’라는 부름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소설 속 공간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1장의 사건이 조성하는 당황스러움은 독자 ‘너’의 사건이 됨으로써 증폭하게 되고 소설 속 ‘엄마’ 찾기에 독자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가와 독자의 세계라는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독자라는 존재는 책 밖의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존재하면서 서사가

창조하는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환상을 경험한다. 경계위에 선 채, 서사 안과 밖의 양쪽을 모두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독서의 몰입과 긴장감을 모두 경험한다. 2인칭의 ‘너, 당신’의 호칭과 2장의 3인칭 ‘그’가 함께 배치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양가적 감각이다.

이 소설에서 각 장들의 제목은 슬퍼하고 있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아닌 ‘엄마’의 목소리이다. 2장의 제목은 ‘미안하다, 형철야’이다. 형철 ‘그’가 엄마에게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110쪽, 126쪽)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로 제목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형철’이지만 ‘엄마’는 부재하면서도 소설 전체의 단계를 열고 닫으며 슬픔을 통제한다.

이 소설의 ‘엄마’는 각 장의 밖에서 존재하다가 자신이 스스로 서술자가 될 때는 유령의 존재로 서사 내 공간에 존재한다. ‘엄마’가 유령으로 등장하는데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독자가 따라 읽게 되는 이유는 이 소설이 계속 장마다 초점화자를 달리하면서도 그들을 모두 ‘너’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장마다 요청받으며 어떠한 서사의 세계라도 초대에 응하여 그 세계에 진입한다. 독자는 슬픔의 몰입과 반성의 긴장 사이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신경숙의 이러한 서사적 시점 배치와 장의 변화가 전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현대 문학계가 “작가보다는 독자나 분배자가 중요시되며, 이를 매개하는 매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²⁷⁾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경숙 작가는 유령적 존재로서의 엄마를 서사의 통제자로 서술전반에 위치시키고 있다.

27) 윤여탁, 『세계화시대의 한국문학: 세계문학과 지역문학의 좌표』, 『국어국문학』 155호, 국어국문학회, 2010, 32쪽.

2-3. 틈의 목소리, 틈의 존재 ‘엄마’

독자에게 ‘엄마’라는 원형이 절대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서는 독자 모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전형적인 한국의 ‘엄마’²⁸⁾라는 것이 아시아 지역성으로 구획된 채 ‘타이거맘’(서양에서 중국 엄마를 일컫는 말)이라는 모호한 호칭 속에 묻혀 서구의 독자들에게 오인되기도 했다.

실제 신경숙 작품의 ‘엄마’는 한국의 엄마로서만 경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 이유는 화소의 ‘엄마’가 매우 모호한 실재의 경계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 속 작가의 엄마는 실종되어 그 생사가 모호하다. 4장에서 ‘엄마’라고 추정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유령’인지 아니면 ‘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정신 속에서 부유하는 상상 속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존재이다. 엄마의 영혼으로 추정하게 되는 근거는 ‘엄마’가 집안으로 들어가 고모나 딸들을 지켜보지만 그들이 엄마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를 바라보며 ‘엄마’와의 기억을 회상한다. 자연스럽게 독자는 이들의 ‘엄마’가 ‘새’로 변신하여 자식들 앞에 나타난 것이라고 유추한다.

유령이 아닐 때에도, 또 실종되기 전에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가족들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 엄마의 출생일은 처음부터 기록으로도 정확하지 않다. 제1장의 제목처럼 엄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1928년 7월 24일생이라고 엄마의 생년월일을 적는데 아버지가 엄마는 1936년 생이라고 했다. 주민등록상에만 38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36년생이라는

28) 한금윤, 『시간의 서사화와 의사소통: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제30집, 세계문화비교학회, 2010년 봄호, 16쪽.

것이다. 너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중략) 그러면 7월 24일이라는 엄마의 생일은 제대로 된 것일까? 생각하면서. (11쪽)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모르는 자로서 이승과 저승의 틈 사이에서 ‘엄마’는 ‘엄마’가 되었다가 다시 ‘딸’이 되어 자신의 ‘엄마’를 필요로 하는 세상 기억 속의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독자인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다.

저기.

내가 태어난 어두운 집 마루에 엄마가 앉아 있네.

엄마가 얼굴을 들고 나를 보네. -(중략)-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254쪽)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존재인 ‘엄마’가 서사를 지배하는 이 소설의 시간의 흐름은 사건의 발생에서부터라는 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엄마’의 실종은 서사의 플롯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일주일 전에 일어난 서사 밖의 일이며, 소설의 서사적 구조에서 ‘엄마’의 시간은 실종 후 9개월이 흐른 날에 멈춘다. 이 소설에서 엄마의 사건은 서사 밖-서사 안-서사 밖의 시간 속에 위치해 있다. 마지막으로 ‘너’가 ‘엄마’의 실종에 대해서 언급한 말은 피에타에게 ‘엄마를 부탁’하는 것이다. ‘엄마’의 생사는 소설이 끝날 무렵에도 아직도 물음표와 간절한 요청으로 표현되어 서사의 시간은 멈추었으나 사건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엄마’의 실재는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부유할 뿐이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 실체가 모호한 ‘엄마’의 실재는 그 어느 누구의 엄마가 아닌 채 ‘엄마’로서 모두의 죄책감 속에 존재한다. ‘엄마’의 실재는 ‘아무도’ 모르므로 글을 읽는 모두는 장미묵주를 들고 ‘엄마’의 평안을 기도하게 된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원형적 화소인 ‘엄마’는 신경숙의 ‘엄마’를 드러내는 상이한 서사적 전략으로 전복된다. 신경숙 소설의 서사적 전략으

로 인해 반복되어 익숙한 원형으로서의 ‘엄마’는 ‘아무도 모르는’ 낯선 존재로, 우리 모두가 죄책감을 가지고 찾아야 할 대상이 된다. 원형의 존재인 ‘엄마’는 소설가 신경숙의 서사전략을 통해 앎과 모름의 경계적 존재, 삶과 죽음의 경계적 존재가 된 것이다.

3. 김지영: ‘다시 쓰기’의 전략

3-1. ‘Mother’를 ‘Mom’으로

서사적 형식으로 소설 미학의 완성을 이룬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영미권 출판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번역가 김지영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김지영 작가의 번역을 통해 ‘아마존 닷컴’의 베스트셀러 100위권에 진입하고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4위까지 뛰어 올랐다.²⁹⁾ “번역은 일단 출발자체가 원본과는 전혀 다른 언어적, 문화적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하지만 그 두 공간이 서로 소통 가능하고 쉽게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³⁰⁾기에 번역가가 이러한 약점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지영의 미국에서의 번역은 2011년 런던에서 판매될 때³¹⁾의 번역과

29) 『김지영 번역후기, 번역가의 알려지지 않은 작업은 사실관계 확인』, 『대산문화재단 웹진』, 2014년 여름호, 대산문화.

<http://blog.naver.com/flyl22?Redirect=Log&logNo=140128674569> (최종검색일 2016.11.9.)

30) 정혜옥, 『번역과 문화연구』, 경성대 출판부, 2010, 31쪽.

31) Kyung-Sook, SHIN, Ji-young, Kim, *Please Look After Mother*, Orion Publishing Group, 2011.

다르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미국 판³²⁾에서 그녀는 제목의 ‘Mother’를 ‘Mom’으로 바꾸었다. ‘어머니’와 ‘엄마’는 다른 실체이다.³³⁾ ‘엄마’라는 말은 ‘어머니’보다는 친근하고 ‘엄마’를 부를 때 자식들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시간은 지금까지 축적된 힘을 상실한다. 서구, 비서구의 누구에게나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없는 ‘Mom’으로 호명하는 것이 번역서적으로서 넘어야 할 경계를 더 쉽게 만든다.

김지영 번역가도 원형이라는 보편성과 한국적 서정성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 ‘엄마에 대한 회한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터뷰의 대목을 보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원형적 스토리의 발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그녀 또한 판단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수용자’를 위한 ‘자국화’ 번역 방식

보편적 원형 서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신경숙의 번역 불가능한 한국적 서정의 문체와 그 리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농촌에 대한 묘사가 많은 부분 서정적 배경으로 작품의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배경이나 가치 문화적인 것을 전달할 때, 그녀는 ‘설명’이라는 진술방식을 선택하여 해결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땀에 젖은 수건을 쓰고 다닌다는 대목에는 농사짓는 여자들이 일할 때 쓰는 수건이라고 풀어 썼다.”고 한다.³⁴⁾ 이러한 설명이라는 방식의 선택보다 김지영 번역가의 번

32) Kyung-Sook, SHIN, Ji-young, Kim, *Please Look After Mom*, Random House, 2012.

33) 변학수, 『서술방식으로서의 반기억-권터 그라스의 『계절음으로 가다』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독일어문학』 제60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3, 148쪽.

34) 『김지영 번역가와의 인터뷰, ‘소설을 부탁해』, 『대산문화 웹진』, 2011년 봄호, 2011.5.

역 전략에서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문장 대 문장의 번역보다는 흐름을 중시한다.”고 한다고 말한 부분이다. 그녀가 선택한 전략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전제하고 문장구조를 흔들고 재구성한 것이다.³⁵⁾

종합적으로, 김지영의 번역관은 ‘수용자 중심적인 번역관’이다.³⁶⁾ 김지영은 “독서 경험을 방해할 만한 장벽을 허물어서 미국인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⁷⁾ 대체로 번역불가능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휘, 문장, 분위기, 리듬, 정서, 의미, 태도, 기타 등등 언어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특수한 문제를 보편성과 연관하여 김지영이 선택한 번역 방법³⁸⁾은 ‘변형-첨가-누락’

http://www.wkorea.com/content/view_02.asp?menu_id=06030200&c_idx=01010606000175&C_5 (최종검색일 2016.11.9.)

- 35) 김지영이 선택한 번역전략은 크게 영어권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을 맞추기 위해, 한국문화, 언어적 요소를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자국화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 사이 ‘모성’이라는 보편적 소재가 소설 전면에 부각된다. 또한 김지영은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쉬운 영어 표현과 짧은 문장을 즐겨 쓰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 구, 문장들은 번역의 과정에서 과감히 생략하거나 단순화한다. 때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에 없는 표현을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김지영의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지 않다고 비판하기 보다는 한국 문학을 알지 못하는 영어 독자에게 한국작가와 문학을 널리 알리는데 성공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선경의 논문은 김지영 번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윤선경, 『영어로 대중화된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세계문학비교연구』 제42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3, 579-594쪽.
- 36) 이러한 접근은 올해 한강의 번역을 담당한 데보라 스미스가 표방한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전략은 올해 화제를 일으킨 스미스 이전 번역가 김지영이 먼저 발표한 것이며 많은 번역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본고는 번역가와 소설가의 결합에 대해, 시의적인 화제가 일어나기 이전의 노력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 37)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世界文學比較研究』 37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310쪽.
- 38) 『김지영 번역가와의 인터뷰, ‘소설을 부탁해』, 『대산문화 웹진』, 2011년 봄호, 2011. 5. “우리 안의 세계문학을 보다’ 기획특집: 김지영 번역가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W>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6. 이 대답에서 가독성과 번역의 충실성 중에 가독성을 선택한 그녀의 용단을 엿볼 수 있다.

의 ‘자국화 전략³⁹⁾이다.

김지영이 번역가로서 ‘자국화’의 전략을 선택하였다고 하지만 그녀의 ‘자국화’는 다르다. 그녀에게 ‘자국’과 ‘이국’의 경계가 이미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미한인이라는 경계인의 위치에 서서 미국의 문화적 수요를 파악한다. 그녀는 미국의 수요에 응답하는 한국의 작품을 해석한 후 자신을 길러 준 문화적 시각으로 ‘다시 쓰는’ 재생산의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중에서 어느 곳이 자국이며, 과연 한국은 이국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 경계의 긴장감은 타 번역가와와는 다른 차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경계인 김지영이라는 번역가의 프리즘을 통과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작품 창작의 주체와 함께, 경계인이 자신이 위치해 있는 경계에서 다시 쓴 새로운 창작품이 된다.

3-3. 2인칭 ‘너’와 ‘you’의 경계를 허문 과감한 선택

2인칭 ‘너’와 3장의 ‘당신’으로 불리는 한국어 어감 차이는 ‘you’로 통일되었지만 ‘you’가 주는 울림이 분명히 있다. 이는 ‘2인칭’ 호명의 위력⁴⁰⁾이다. 신경숙 작가가 2인칭을 선택한 것은 한국어와 ‘너’와 ‘당신’의

http://www.wkorea.com/content/view_02.asp?menu_id=06030200&c_idx=01010606000175&C_=5 (최종검색일 2016.11.9.)

39) 박철우,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 전략 분석』, 『한국문예 창작』 제13권 제2호, 2014, 190-191쪽; 윤선경, 『문학번역 연구 현황과 과제: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57권 3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3, 124-145쪽. 이 논문에서 윤선경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역을 둘러싼 많은 논의를 정리하며 진정한 문화의 소개와 교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40) 김외곤, 『2인칭 서술이 작품의 수용에 미친 영향: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195-218쪽.

결을 살려 한국어의 독자적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것이었지만, 김지영 작가가 2인칭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가지는 번역불가능성을 누락하고 ‘너’로 통합하는 것이다. 김지영 번역가는 단어를 과감하게 누락함으로써 언어를 중재한 것이다. 번역의 과감함은 긴 문장을 잘라 짧게 만든다든지, 엄마의 손을 묘사함에 있어 거친 손이 노동으로 인해 두꺼워졌음을 언급하는 부분을 생략한다든지, 그리고 ‘비린 것’을 ‘just fish’⁴¹⁾라고 변형한 것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

그녀가 선택한 번역의 태도가 성공한 것은 우선적으로 외국인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짧은 문장 구조로 문장을 간결하게 했기 때문이다. 번역가 김지영은 이러한 선택을 혼자하지 않았다. 번역가는 원작자에게 수용자⁴²⁾의 선호도와 번역가의 ‘다시 쓰기’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교섭’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번역가의 창의적 권한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김지영 번역가는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변형을 선택하였지만 독자와의 공감을 유도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적 목소리인 사투리나 지역적 배경은⁴³⁾ 누락하거나 변형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작을 ‘다시 쓰기’한 목적은 원작을 독자에게 비서구의 문학이라는 경계의 저항감 없이 소개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번역가가 지켜야 할 내재적 규칙⁴⁴⁾이고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41) 박철우,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 전략 분석』, 『한국문예 창작』 제13권 제2호, 2014, 185-188쪽.

42) 수용자 중심의 번역이 문학한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다음의 논문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음영철, 『한국소설의 한류 가능성 모색,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93-116쪽.

43) 박철우,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 전략 분석』, 『한국문예 창작』 제13권 제2호, 2014, 190-191쪽.

44) “중요한 것은 모국어를 송두리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적 재료 속에서 태어나는 온갖 발견과 변이들이 그에 걸맞은 ‘행위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들에 또 다른 통사법이라는 내재적인 규칙, 즉 ‘일관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윤동

것이 ‘다시 쓰기’의 흐름을 만들어 작가가 만들어내는 문장의 흐름과 함께 번역어가 넘어야 하는 경계 사이를 흐른다.

‘번역의 공간에는 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데리다는 말하고 있지만⁴⁵⁾ 이 공간이 권력의 위계를 설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권력의 대결이 만들어내는 긴장위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작가와 번역가가 있는 공간이라면 이 공간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이미 민족/국가의 상상된 공동체의 동질성을 전복하고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협상하는 과정”⁴⁶⁾을 이루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김지영 번역가가 번역될 수 없는 빈 공간을 남겨 놓았다고 하여, 번역되지 않는 수사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김지영 번역가는 스피박이 말했듯이 비서구과 서구를 갈라 경계 짓는 “폭력을 넘어갈 수 있는 힘”⁴⁷⁾을 번역을 통해 실현한다.

남아 있는 차이의 잔여를 가리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서사적 가능성을 독서를 통해 상상함으로써 서구와 비서구의 ‘엄마’는 부재가 아니라 ‘실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사의 내연에 존재하는 ‘엄마’를 모두의 ‘엄마’일 수 있게 ‘너의 엄마’로 호명하는 외연을 통해⁴⁸⁾ 서구와 비서구 독자 모두가 ‘엄마’의 존재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된

구, 『비재현적 번역 이론의 가능성: 들뢰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90쪽.

45) 데리다, 『signature event context』, 『margins of philosophy』, 1972. (정혜옥, 『번역과 문화연구』, 경성대 출판부, 2010, 57쪽에서 재인용) 홍영두, 『독일 근현대사회철학 원전 번역과 한국의 근대성』, 『시대와 철학』 15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46)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30-231쪽.

47) 정혜옥, 『번역과 문화연구』, 경성대 출판부, 2010, 170쪽.

48) “소설 속의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엄마가 떠올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장미영, 『자기반성을 유도한 탁월한 통찰-신경숙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수필과 비평』 제103호, 2009, 92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가족 해체”를 다루면서 전통 담론인 “엄마성(모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타자성”을 통한 관계의 회복이

것이다. 이는 비서구와 서구가 함께 문학의 생산과 번역을 통한 수용 과정으로 구축해 낸 것이다. 그리고 번역의 실천이 만들어 낸 공간이다.⁴⁹⁾

4. 결론

세계성과 민족성의 경계를 짓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문학평론가이자 독문학자인 김주연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시 전문 월간지 ‘유심’ 10월호에 실린 ‘한국문학, 세계문학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소한 의미의 민족문학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 협소한 의미의 민족문학이라는 것이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이 되어서 세계성을 규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세계문학은 나름의 차이를 지닌 다양한 문학이 세계로 확산되어야 하는 역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새로운 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⁵⁰⁾한다.

본고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미권 출판 시장의 개입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문학의 장에 진입하기 위해 한국문학이 취해야 할 서사적 전략과 번역의 전략을 정리해 보았다. 이 작품에 대한 국내외 평가와 국내외 수용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 세계문학에서 한국문학이 더 많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음영철, 『한국소설의 한류 가능성 모색,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96-101쪽.

49) “번역의 평가 기준이 오직 번역의 언표 행위 및 실천 속에서만 내재적으로 규정된다.” 윤동구, 『비재현적 번역 이론의 가능성: 들뢰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83쪽.

50) 윤지관, 『세계문학을 향하여-지구시대의 문학연구』, 창비, 2013, 186쪽.

영역을 점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세계 문학과 민족문학의 경계 그 위에서 사유하여 보는 것으로 제안해 보았다. 경계 위에 서서 양쪽을 모두 조망하는 작가와 번역가의 긴장감은 양쪽 모두의 문학 발전을 유도할 수도 있다. 우선 양쪽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보다는 경계 위에 서기 위한 노력을 서사적으로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역동적 장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⁵¹⁾ 소설가 방현석은 세계에 소개할 ‘한국문학은 낡고 고루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작품들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⁵²⁾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서 한국문학의 번역화가 진행될 때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발전적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51)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서 한국문학번역원과 달키 출판사가 착수한 <한국문학총서>의 발간과 도서출판 아시아의 “K픽션 시리즈”의 출간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총서들의 리스트를 보면, 세계인이 공감할 오랜 서사적 원형의 스토리를 어떠한 서사적 전략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리즈에 선정된 작품들은 “한국성보다 세계성이 두드러진다.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가치관과 의식, 생활형태가 다양하게 변모해 가는 21세기의 일상을 젊은 작가들의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들이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의 노고에 의해 11월 16일 미국 달키 아카이브 출판사(이하 달키)에서 한국문학총서 1차분 10종이 번역되어 나온다. 이광수의 <흙>에서부터 장은진의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까지 근현대문학의 주요작가와 신진작가가 포함되었다. 내년에는 김남천의 <대하>, 하일지의 <우주피스 공화국> 등 2차분 15종이 출판되어 25종이 완결된다. 번역원은 2014 런던 도서전에서 총서의 작가를 포함한 10명의 우리작가가 참여하는 홍보 활동을 계획 중이다.”
“해이수, 달키 아카이브 한국문학 총서 출간, 번역은 국경을 뛰어넘는 소통.”
<http://blog.naver.com/itlk?Redirect=Log&logNo=100202877754>, (최종검색일 2016.11.9.)

52) “도서출판 아시아가 젊은 작가들의 단편을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수록한 ‘K픽션 시리즈 1차분 5권을 선보였다. 박민규의 <버펄과의 저녁 식사>, 박형서의 <아르판>, 손보미의 <애드벌룬>, 오한기의 <나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최민우의 <이베리아의 전갈>이다.” 『문학한류 ‘K픽션’으로 잇는다』, 『경향신문』, 2014.10.5.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Kyung-Sook, SHIN, Ji-young, Kim, *Please Look After Mother*, Orion Publishing Group, 2011.
_____, *Please Look After Mom*, Random House, 2012.

2. 논문과 단행본

김외곤, 「2인칭 서술이 작품의 수용에 미친 영향: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195-218쪽.

김영신,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사의 비가시성 연구-『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제14권 2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2, 63-78쪽.

박승희, 「민족과 세계의 연대방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7집, 2010, 505-530쪽.

박철우,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 제13권 제2호, 2014, 181-197쪽.

변학수, 「서술방식으로서의 반기억-귄터 그라스의 『계절음으로 가다』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독일어문학』 제60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13, 141-162쪽.

백낙청, 「세계화와 문학: 세계문학, 국민/민족문학, 지역문학, 특집: 세계문학을 다시 묻는다」, 『영미문학연구회 2010년 봄 학술대회 기조발제』 내용, 2010.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1집, 2007, 71-96쪽.

윤선경, 「영어로 대중화된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세계문학비교연구』 제42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3, 579-594쪽.

_____, 「문학번역 연구 현황과 과제: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57권 3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3, 124-145쪽.

윤동구, 「비재현적 번역 이론의 가능성: 들뢰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윤여탁, 「세계화시대의 한국문학: 세계문학과 지역문학의 좌표」, 『국어국문학』 155호, 국어국문학회, 2010, 19-38쪽.

윤지관, 「특집: 세계문학을 다시 묻는다: ‘경쟁하는 문학과 세계문학의 이념」,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29권, 영미문학연구회, 2010, 34-54쪽.

- 음영철, 『한국소설의 한류 가능성 모색,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93-116쪽.
-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世界文學比較研究』 37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307-309쪽.
- 장미영,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소고: 정찬과 토마스 만의 베니스 소설의 상호텍스트성』, 『외국문학연구』 제4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415-439쪽.
- 정명교, 『세계문학과 번역의 맥락 속에서 살펴 본 한국문학의 오늘』,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2013, 11-37쪽.
- 정호정,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제14권 2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2, 255-281쪽.
- 조영일, 『『엄마를 부탁해』를 둘러싸고』, 『문화비평』 여름호, 황해문화, 2011, 301-312쪽.
- 최성실, 『세계속의 한국문학: 내러티브 인지와 공감의 글쓰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9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379-406쪽.
- 한기욱, 『지구시대 한국문학의 안과 밖, 우리 시대의 사랑 성 환경 이야기』, 『창작과 비평』 122, 2003, 68-72쪽.
- 한금윤, 『시간의 서사화와 의사소통: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30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0, 5-28쪽.
- 홍영두, 『독일 근현대사회철학 원전 번역과 한국의 근대성』, 『시대와 철학』 15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363-417쪽.
- Kim Seong-Kon, 『Korean Literatur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omparative Korean Studies』 8권, 국제비교한국학회, 1995, 33-50쪽.
- 폴 윌먼, 『한국영화를 통해 우회하기』, 김소영 편저, 『트랜스: 아시아 영상문화』, 현실문화연구, 2006, 569-571쪽.
- 김병욱 외 편역, 『문학과 신화』, 대방출판사, 1983.
-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김혜신 역, 돌베개, 2006.
- 시모어 채트먼,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5.
- 윤지관, 『세계문학을 향하여-지구시대의 문학연구』, 창비, 2013.
- 정혜옥, 『번역과 문화연구』, 경성대 출판부, 2010.
-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2.

3. 기타

『김지영 번역후기, 번역가의 알려지지 않은 작업은 사실관계 확인』, 『대산문화재단 웹진』, 2014년 여름호. 대산문화.

<http://blog.naver.com/flyl22?Redirect=Log&logNo=140128674569>,

『김지영 번역가와의 인터뷰, ‘소설을 부탁해』, 『대산문화 웹진』 2011년 봄호.

http://www.wkorea.com/content/view_02.asp?menu_id=06030200&c_idx=010106060000175&C_=5

Abstract

Standing on a Boundary, Narrative and translation Strategy to be World Literature*

- focused on 〈Please Look After Mom〉 written
by Shin Kyung-sook and translated by Kim Ji-Young

Yun, Jung-Hwa(Hongik University)

In order to make the voice of Korean literature strong and influential enough in the dynamic field of world literature, any relevant fields and authors should keep working hard to figure out what and how they write. The reason for such argument is that in terms of world literature, it has been built upon this dynamic concept of introducing any diverse pieces of literature of their own originalities to as many readers as possible around the world.

Referring to how 『Please Look After Mom』 written by SHIN Kyung-sook entered English and American publishing markets, this study looked into a narrative strategy and a translational strategy as well which Korean literature should work on to get itself introduced to the market of world literature. Since the novel of SHIN Kyung-sook had creative reasons in relation to the narrative strategy, it was able to make use of these new differences to knock on a door beyond the world of Korean literature. ‘Mom’ as the original form which had become familiar after being repeated via the narrative strategy of the novel by SHIN Kyung-sook develops into not only some stranger whom no one would know but also a subject that we should see with a sense of guilty. The narrative strategy of Author SHIN Kyung-sook made ‘mom’, the being of the original form, another ‘mom’, the boundary being.

Not only that, 『Please Look After Mom』 by SHIN Kyung-sook passed through a prism of Translator KIM Ji-young, a boundary individual, and it became a whole new creation that the boundary individual had written on the boundary in collaboration with the main agent who created the piece from the beginning. She first interprete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5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the Korean literature which was trying to respond to demands of US market and afterwards, as far as the study understands, the tension of the boundary that the translator came to experience through the process of reproduction to 're-write' the piece from the angle of this culture that had been growing her must have been a driving force to help her make distinguishable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other translators.

The communication that the novel written by SHIN Kyung-sook had as world literature and that both the author and Translator KIM Ji-young had accomplished is believed to be something that could not have been realized without this process that the non-western world and the western world were engaged in to accept each other through production and translation of literature.

(Key Words: World literature, SHIN Kyung-sook, KIM Ji-young, Original form, Re-write, Translation, Narrative strategy)

논문투고일 : 2016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2일

수정완료일 : 2016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4일